

노인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인지

The Perception of Residential Privacy of the Elderly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교수 이경희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곽인숙

Dept.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Rhee, Ky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Professor: Kwak, In Sook

〈목 차〉

I. 서 언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residential privacy perceived by the elderly and also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on their perception of privac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ousing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perception of privacy.

The number of 469 elderly aged 55 and over were interviewed in Seoul, Daejeon, Jeonju and D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ies, mean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residential privacy of the elderly were the personal self-esteem, age, housing tenure, pattern of using spaces, family solidarity, and availability of the perception of private space. The perception of the privacy of the elderly can be affect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rivacy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ir present housing environment.

I. 서 언

육체적인 노쇠현상과 함께 직장으로부터의 은퇴 등에 의해 사회활동이 감소되는 노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서 보내야 하므로 노인들에게는 주거환경의 영향이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상생활이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저하되는 노인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통제감의 상실과 무기력이 학습되어 행동에 위축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의 제반 특성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것을 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문제 자체의 성격도 변화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고정적인 해결방안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노인주거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시설과 주택환경을 선택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하도록 개별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노인단지구성의 중요한 변수는 건강상태로서 현재 건강한 경우에는 젊은이의 도움보다는 노인만의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분리적 주거환경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Dowd, 1975).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며 그들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노인이 지배적이며, 동거희망율도 상당히 높는데 반해 노인부양 가족들은 거주공간에 대한 갈등 등을 이유로 노인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이연숙 외, 1991). 노인동거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원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사생활이 침해되는 공간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외, 1995). 또한 프라이버시관의 변화에 의해 76.3%의 많은 노인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인간 고유의 속성이라고 생각된다(전채휘, 1996). 노인

들의 주거생활에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매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동거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주거에 관한 연구는 서구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늦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 후반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구대상층 기혼자녀나 노부모와의 동거주택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수행되어 왔다(최재순 외, 1996).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양재룡, 1982; 이지혜, 1987; 고성중, 1990), 3세대 동거주택을 위한 연구들과 양노원 등의 시설주거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서광진, 1984; 김천행, 1989; 지순 외, 1989). 이밖에 노인들의 주거요구에 관한 연구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최정신, 1992; 오찬욱 외, 1993; 전명숙, 1994) 노인주거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노인거주시설의 질적인 비교나 노인주거내의 주생활조사나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주거공간에서의 반응 중 인지적인 측면의 반응이라 볼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조건과 개인적·대인적 특성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시설이나 3세대 동거주택의 주거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주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나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은 거주자들이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감정적 범주, 인지적 범주, 그리고 행동적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Fishbein and Ajzen, 1974). 이 세가지 범주는 사람들이 주거에 반응하는 방법을 나타내며 주

택을 평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주거의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거만족도의 측정은 이 세가지의 반응 중 정서적인 반응으로 이는 정서적인 긍정적·부정적 느낌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프라이버시의 인지는 인지적인 범주로 다양한 자극과 개인적·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란 개인 혹은 한 집단에 대한 접근의 선택적 통제라 정의할 수 있다(Altman, 1975).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두 측면은 '바라는 프라이버시'와 '획득된 프라이버시'이다. 바라는 프라이버시란 어떤 순간에 얼마만큼의 접촉이 바람직한가 하는, 타인과의 이상적인 상호작용 수준을 주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획득된 프라이버시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 실제 접촉 정도이다. 바라는 프라이버시의 정도가 획득된 프라이버시와 동일하다면 적정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것이다. 획득된 프라이버시가 바라는 프라이버시 보다 낮거나 높으면 불균형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희망하는 수준보다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생활의 보장이 어렵게 되면, 과밀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밀의 느낌은 스트레스의 감정을 포함하며, 인지적 모순의 느낌-공간에 대한 욕구와 실제 유용한 공간의 양의 불일치-을 포함한다.

프라이버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다음과 같은 기능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Westin, 1967).

첫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주변세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 자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의 확보는 수많은 역할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개인의 정서적 이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로부터 벗어나고 규칙이나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셋째, 타인과의 물리적인 격리는 미래의 행동을 계획할 기회

를 준다. 즉 여러 사람의 조명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외부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므로 대인관계에 친밀감을 더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미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상의 기능 이외에도 노인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야간에 수면시간이 단축되거나 역할 상실, 노쇠현상 등으로 인한 낮잠이나 휴식을 위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개별적인 침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된다(허병리, 1996).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다. 특히 개인적인 공간과 영역의 기능이 주거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영역성의 확보나 개인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자율성이나 자유로움 등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홀(Hall, 1966)과 서머(Sommer, 1969)는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과 영역의 확보가 프라이버시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밝혔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주거내에서 독립적인 개인실을 확보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조절에 필수적인 요소라 지적하였다(Lewis, 1959; Journard, 1966). 노인주거 연구에서 르니에와 피누(Rehnier and Pynoos, 1987)는 노인을 위한 환경특성과 디자인 행동원리로서 12가지의 요소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프라이버시의 제공을 그 첫 번째 요소로 제시하였다. 즉 주위의 시선과 친구들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청각적 프라이버시와 시각적 프라이버시는 물리적 분리를 위한 하위차원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이나 대인적 특성,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Zlutnick & Altman, 1972).

노인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은 노인의 환경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장은정, 1990; 김태현, 1994; 이현옥 외, 1995; 서승희, 1996). 단독가구 여자노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주택을 독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심과 프라이버시 보호욕구가 강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박경란 외, 1995). 한 개인의 대인적 특성인 가족의 결속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의존, 혹은 심리적 유대로서 응집력이 있는 가족의 조직망은 환경적인 스트레스 유발요소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곽인숙, 1992) 노인의 주거생활이 쾌적할수록 노인과 그 자녀간의 가족내 결속이 더 강해지고, 그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최혜경, 1984). 한편 개인의 내외통제성은 주로 내적, 외적 통제성격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 이는 한 개인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일어난다고 지각하여 자신이 그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 사건들은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여 운명, 행운, 우연, 그리고 사람의 개인적인 통제와 이해력을 넘어서 외적인 힘에 달려있다고 믿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내외통제성은 노후 적응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며(지연경, 1991; 이현옥 외, 1995),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주거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장은정, 1990).

노인의 상황적인 특성으로서 주거의 소유형태와 거주지역의 특성은 노인의 정서적인 반응과 환경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히 노인이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의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거주지역의 특성은 노인의 환경 평가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서승희, 1996).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형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며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계획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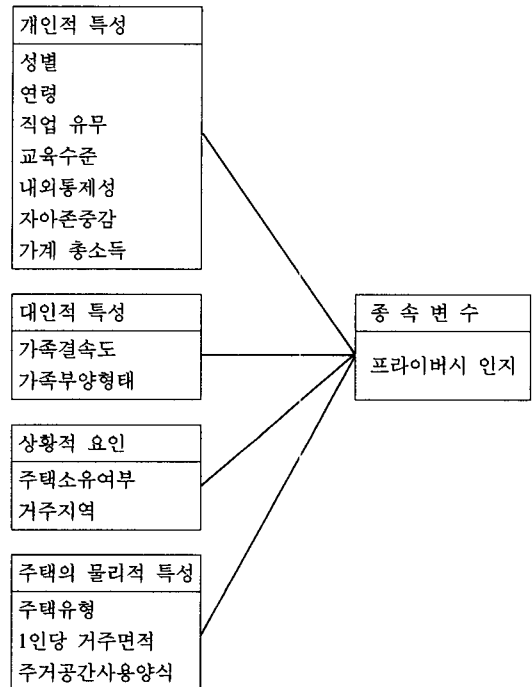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주거공간에서 인지하는 프라이버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년기의 주거공간에서 인지하는 프라이버시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년기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정도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위해 즐루니과 알트만(Zlutnick & Altman, 1972)의 연구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교육수준,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가계의 총소득을 조사하였다. 직업의 유무는 노인이기므로 조사대상 노인부부중 1인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노인부부 모두 은퇴하였거나 무직인 경우는 직업이 없는 가계로 분류하였다. 내외통제성은 현은민(199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중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4개 문항을 선정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내적 통제성향을,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통제성향을 가진 것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이미정(1986)의 연구에서 5점척도의 3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를 존중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대인적 특성으로는 가족결속도와 가족부양형태를 측정하였으며, 가족결속도는 최혜경(1984)의 연구에서 사용한 5점척도의 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족부양형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부부나 홀로 사는 경우는 노인가구로 나누어 3종류로 분류하였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주택의 소유와 거주지역을 선정하여 주택소유는 노인 본인이나 가족소유인 경우는 자가로 전세나 월세인 경우는 임차가구로 분류하였으며, 거주지역은 서울과 기타도시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주택유형과 1인당 거주면적, 주거공간사용양식을 선정하였으며,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였으며, 주거공간의 사용양식은 4종류로 분류하여 현재의 실태와 미래의 희망하는 사용양식을 모두 조사하였다. 주거공간사용양식은 프라이버시의 확보수준이 가장 낮은 가족과 함께 침실을 노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부터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프라이버시의 확보수준이 가장 높은 독립된 침실, 화장실, 거실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프라이버시의 인지는 5점 척도로 1점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경우로, 5점은 충분히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경우로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전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연령,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집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6년 12월 2일부터 1997년 1월 17일에 걸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서울에 360명, 대전, 전주 및 대구에 각각 120명 등 총 720명에게 배부된 질문지 중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496부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AS Program(Ver. 6.04)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대인적 특성, 상황적 요인, 주택의 물리적 특성, 프라이버시의 인지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노인의 가족부양형태와 주거공간사용양식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인지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분석과 DUNCAN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배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1.8%, 여자 48.2%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6.16세, 교육수준은 9.36년으로 중학교 졸업정도가 평균교육수준으로 이는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의 취업상태는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취업한 경우는 35.2%였으며, 은퇴하거나 무직인 경우는 64.8%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45.4%, 기타도시가 54.5%였으며, 주택의 소유상태는 자가인 경우가 88.7%, 임차인 경우가 11.3%로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생활주기에서 볼 때 노인기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47.3%,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52.7%로 노인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은 높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형태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가 난방설비나 욕실설비, 취사설비 등의 수준이 높고 공간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부양형태는 노인부부나 노인단독가구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5.4%,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소득은 평균 151.8만원이었으며, 1인당 거주면적은 평균 18.69평으로 비교적 넓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계가 절반정도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가족결속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내외통제성의 정도는 중간수준을 보였다. 주거공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469)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243	51.8
	여자	226	48.2
직 업	취업	165	35.2
	은퇴, 무직	304	64.8
거주지역	서울	213	45.4
	기타도시	256	54.5
주택소유	자가	416	88.7
	임차	53	11.3
주택형태	단독주택	222	47.3
	공동주택	247	52.7
가족부양형태	기혼자녀와 동거	66	14.1
	미혼자녀와 동거	166	35.4
	노인가구	237	50.5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66.16	8.693
교육수준(년)		9.36	5.561
1인당거주면적		18.69	15.080
가계 총소득(만원/월)		151.88	158.178
가족결속도(5-25점)		17.93	3.056
내외통제성(4-20점)		12.33	2.517
자아존중감(3-15점)		9.74	2.371
프라이버시 인지(1-5점)		3.32	1.132

간에서의 평균적인 프라이버시 인지수준은 3.3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의 주거공간사용양식과 미래의 희망

노인들이 현재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양식과 미래에 희망하는 공간사용양식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노인들이 주거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하며 또한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가를 밝히는 것은 노인주택 설계 시나 또는 3세대 동거주택을 계획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¹⁾ 노인들이 주택내에서 각 공간을 현재 얼마나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공간들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은 노인들이 좀더 많은 자율성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때 생활만족의 수준이 더욱 높다는 선행연구(서승희, 1996)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현재 주거공간 사용양식에서 다른 생활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침실을 다른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3.0%였고,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을 사

용하고 있는 경우가 18.2%였으며, 15.5%가 모든 생활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사용에서는 상당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밖의 공간들은 상당 부분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주거공간의 사용양식에서는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35.7%였으며 이는 노인들이 가족과는 독립적으로 화장실이나 욕실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독립된 침실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30.3%였으며, 모든 생활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1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허병리(1996)의 연구에서도 노인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고 청·장년기와는 달리 낮잠·휴식시간이 증대되므로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침실공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장기능의 저하 등으로 야뇨회수가 많아지므로 변기, 욕실구조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3. 노인들의 가족부양형태 및 주거공간사용양식에 따른 프라이버시 인지

미래의 노인주택에서 바람직한 프라이버시의 수준

<표 2> 현재의 주거공간사용양식과 미래의 희망양식의 비교

	현재의 주거공간 사용양식		미래의 주거공간 사용희망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가족과 침실을 공동사용	101	23.0	65	16.0
독립된 침실의 사용	190	43.3	123	30.3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 사용	80	18.2	145	35.7
독립된 침실, 화장실, 거실 사용	68	15.5	73	18.0

1) 이경희(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7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는 76.9%가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구조인 가족부양형태와 물리적 구조인 주거공간사용양식의 측면에서 살펴본 노인들이 인지하는 프라이버시 수준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가족부양형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인지 수준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가장 낮았으며, 기혼자녀와 동거하거나 노인부부만이 사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거공간사용양식에 따른 프라이버시 인지의 차이는 가족과 침실을 공유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확보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였으며, 침실과 화장실, 거실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프라이버시 확보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1995), 서승희(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방의 사용형태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차이를 보여,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율성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환경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프라이버시 인지에 가

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거공간에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은정(199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만족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소유형태, 노인의 직업유무, 연령, 주거공간 사용양식, 가족결속도, 거주지역, 1인당 거주면적의 순으로 각 변인들이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입차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은퇴한 경우보다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 주거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1인당 거주면적이 넓을수록 프라이버시가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공간내에서 독립적인 개인실 확보가 프라이버시의 조절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루이스(Lewis, 1959)와 조나드(Journard, 196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5.9%였다. 성별, 교육수준, 주택 유형, 총소득, 가족부양형태, 내외통제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볼 때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가 하는 가족부양형태 자체보다는 노인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높으며, 가족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주거공간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표 3> 가족부양형태와 주거공간사용양식에 따른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인지

변인	구분	N	평균점수	Duncan	F-value	
프라이버시 인지	가족부양 형태	기혼자녀와 동거	66	3.439	A	4.68**
		미혼자녀와 동거	165	3.109	B	
		노인가구	235	3.443	A	
주거공간 사용양식	가족과 침실을 공동사용	100	2.870	C	11.36***	
		독립된 침실의 사용	189	3.392		B
		독립된 침실과 화장실 사용	80	3.487		B
		독립된 침실, 화장실, 거실 사용	67	3.836		A

** p<.01 *** p<.001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관한 분석결과
(N=496)

독립변수	b (β)
개인적 특성	
성별	.085(.038)
연령	.018(.137)*
직업유무	.333(.141)**
교육수준	.008(.039)
내외통제성	-.034(-.072)
자아존중감	.118(.247)***
총소득	-.00003(-.004)
대인적 특성	
가족결속도	.046(.124)**
가족부양형태(노인가구)	
기혼자녀와 동거	-.023(-.007)
미혼자녀와 동거	-.115(-.049)
상황적 요인	
주택소유여부	.539(.145)***
거주지역	.249(.111)**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택유형	.030(.013)
1인당 거주면적	.007(.095)*
주거공간사용양식	.152(.133)**
상수항	-.877
R ²	.259***

* p<.05 ** p<.01 *** p<.001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인주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택내부의 물리적 시설과 안전, 3세대 주거계획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노인이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자율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에서 인지하는 프

라이버시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재의 거주상태와 노인들이 원하는 주거공간의 사용양식, 노인의 개인적 특성, 대인적 특성, 상황적 요인,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은 인적구조인 가족부양형태와 주거공간의 사용양식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인지하는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은 노인들이 침실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미래에는 독립된 침실, 화장실, 욕실을 희망하고 있었다. 화장실과 욕실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현재에는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으나,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야뇨회수가 많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독립성의 욕구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동거하는 3세대 주택에서나, 노인공동주거시설에서도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고 낮잠이나 휴식시간이 증대되므로 침실 공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변기나 욕실의 구조와 침실과의 거리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프라이버시 인지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거공간에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소유형태, 노인의 직업유무, 연령, 주거공간사용양식, 가족결속도, 거주지역, 1인당 거주면적의 순으로 각 변인들이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소유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은퇴한 경우보다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 주거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1인당 거주면적이 넓을수록 프라이버시가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성별, 교육수준, 주택유형, 총소득, 가족부양형태, 내외통제성 등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볼 때 누

구와 함께 거주하는가 하는 인적구조인 가족부양형태보다는 노인 자신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가족의 심리적 결속의 수준 및 주거공간내에서의 독립적인 공간의 사용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확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대 동거주택, 노인공동주택, 노인양호시설, 노인주거단지 등을 계획할 때 노인들의 주거공간에는 개별적인 침실과 화장실, 욕실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적 공간과 다수인을 고려한 공적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사적 공간에서는 노인들이 원하는 자율성과 사생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친교를 통해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주거시설과 주택환경을 선택하거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거주지 선정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프라이버시 인지수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주거공간에서의 노인들의 정서적, 행동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 욕구를 위한 친사회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곽인숙(1986)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환경심리학적 접근. 우석대학교 논문집 8, 89-102.
- 곽인숙(1992).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성종(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계획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옥, 김양희, 이경희, 노숙령, 홍명숙, 김진희(1995). 노인 가정생활 욕구조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가정문화논총 9, 133-193.
- 김천행(1988). 3대가족을 고찰한 공동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박경란, 제미경, 오찬옥(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
- 서광진(1984). 노인을 위한 건축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승희(1996). 주거이동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 주거 특성에 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2).
- 양재룡(1982). 노인주거의 적정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9).
- 이경희, 윤정숙, 홍형욱(1993). 주거학개설. 문운당.
- 이경희(1995). 도시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거 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교수논문발표회초록, 22-31.
- 이미정(1986).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숙, 박은선(1990). 주거환경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중산층 아파트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2), 27-48.
- 이연숙, 신화경, 이선미, 백혜선(1991). 한국의 주거 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1), 17-34.
- 이연숙, 신화경(1995). 노인동거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155-162.
- 이지혜(1987). 노인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온정(1990).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채휘(1996). 고령자주거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2), 139-52.
- 지 순, 윤복자, 우미경(1989). 양노원 거주 노인들의 여가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3.

- 지연경(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신(1990). 3세대동거가족의 주요구,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신(1992). 대도시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의 주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6).
- 최정신, 광인숙, 신경주, 조재순(1996). "In Reference to the Comparison of Research Trends Among Korea, Japan and the U.S.A.". 한국주거학회지 7(2), 45-56.
- 허병리(1996). 노인의 제특성에 따른 주거환경계획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2), 79-90.
- 현은민(1994).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관리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5-204.
- Altman, I., P.A. Nelson, & E.E. Lett(1972). "The ecology of home environment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Washington, D.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pring.
- Dowd, J.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5).
- Fishbein and Ajzen(1974). "Attitudes toward objects as predictors of a single and multiple behavioral criteria". *Psychological Review* 81, 59-74.
- Hall, E.T.(1966).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 Doubleday.
- Journard, S.M.(1966). "An exploratory study of body accessib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 221-231.
- Lewis, O. (1959). *Five families*. New York : Mentor Books.
- Rehnier, V. and J. Pynoos (1987). *Housing the Aged : Design Direc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N.Y. : Elsevier.
- Sommer, R. (1969). *Personal space*. Englewood Cliffs. N.Y. : Prentice-Hall.
- Westin, A. (1967).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 Zlutnick, S. & Altman, I. (1972). "Crowding and human behavior". In J. Wohlwill & D. Carson (Eds.). *Environment and the social sciences: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